

다니엘서 - 제47번

기만적 교리의 탈을 벗기다: 다니엘 8장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재림교 신학에 제기되는 도전

Jeff Pippenger
2024-01-11

다니엘 8장 9절부터 12절에서 로마의 작은 뿔이 표상될 때, 그것은 남성과 여성 사이를 오가는 이성복장자, 곧 이성복장의 상징이기 때문에 왜곡된 상징이다. 이는 로마가 두 단계로 대표된다고 본 밀러파의 해석, 즉 첫째는 로마의 국가 통치, 둘째는 로마의 교회 통치라는 이해와는 일치한다. 그러나 그 절들에서 성별이 남성과 여성 사이를 오가며 흔들리는 가운데, 그 작은 뿔은 역사적·예언적 연속성에서 벗어나 있다(왜곡됨). 그럼에도 그 네 절 각각은 로마의 국가 통치 또는 교회 통치와 직접 관련된 역사를 나타낸다. 이교 로마는 제국의 권위에 저항한 모든 이들을 박해했지만, 10절에서의 교황 로마(여성)의 박해는 특별히 하늘을 겨냥한다.

로마가 넷째이자 최종 왕국이라는 밀러파의 이해에서는, 국가 권력에서 교권으로, 다시 국가 권력으로, 다시 교권으로 흔들리는 양상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다니엘서 2장 발 부분의 철과 진흙의 섞임을 보았고, 그것을 로마의 두 단계로 단순히 이해했을 뿐, 넷째와 다섯째 왕국의 구체적인 역사적 순서를 규정하려는 관심은 없었다. 그들은 다니엘서 7장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했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여 큰 말을 한 그 뿔이 로마 짐승의 원래 열 뿔 가운데서 세 뿔을 뽑아냈다고 보았다. 설령 밀러가 9절부터 12절에 나타나는 성(性)의 교차를 인지했다 하더라도, 넷째 왕국이 로마라는 그의 이해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밀러파의 이해에서는 넷째 왕국은 1798년에 끝났고, 다음 예언적 사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었다.

여성적 뿔은 남성적 뿔과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여자를 가리키며, 10절과 12절에 묘사되어 있다.

그것이 매우 커져 하늘의 군대에까지 이르렀고, 그 군대와 별들 가운데 일부를 땅으로 내던져 그것들을 짓밟았다. 다니엘 8:10.

교황권의 박해는 기독교(하늘의 군대)를 겨냥했으며, 12절에서 교황 로마(여성형)는 유럽의 왕들과 음행하는 범죄를 통해 그 살인적 행위를 수행할 권세를 받는다.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매일 드리는 제사를 대적하도록 그에게 한 군대가 주어졌고,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졌으며,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다니엘 8:12.

그 절에서 "host"는 "the daily"에 대하여("against the daily") 교황권에 주어진 군사력을 나타낸다. "against"라는 단어는 "from"을 의미한다. "the daily"로 대표되는 유럽의 이교도 왕들(이교 로마)로부터, "by reason of transgression"으로 말미암아 교황권에게 군사적 지원("an host")이 주어졌다. 관계에서 교회가 주도권을 쥐 채 교회와 국가가 결합하는 것이 바로 "transgression"이다. 그 "transgression"의 포도주는 그리스도인의 피다. 교황권이 이교 로마의 군대를 장악하자, 교황 로마("it")는 "진리를 땅에 던져버렸고;

행하였으며, 형통하였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는 군대를 교황 로마에게 내어주는 일이 또한 묘사되어 있다: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요새 같은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다니엘서 11:31.

그 절은 이교 로마에서 교황 로마로의 역사적 전환을 가리킨다. 그 절에서 "arms"는 496년에 프랑크족(프랑스)의 왕 클로비스로부터 시작해 교황권을 지지하기 위해 일어서기 시작한 유럽의 왕들을 뜻한다. "arms"는 또한 4세기부터 538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전쟁을 통해 "힘의 성소"(로마 시)를 더럽혔다. "arms"는 교황권의 부상에 대한 이교 저항도 제거했으며, 508년까지 그 이교 저항은 끝났다.

"take away"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sur"이며 "제거하다"를 뜻한다. "arms"는 "abomination that maketh desolate"(교황권)을 538년에 땅의 왕좌 위에 올려놓았다. 다니엘서 8장 12절에서 "an host"가 여성형 작은 뿔에게 주어졌다고 밝힐 때, 그것은 11장 31절의 증언과 일치한다. 요한계시록도 13장에서 같은 진리에 증언한다.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더라.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 13:2.

화이트 자매는 2절의 짐승을 교황권으로, 그 절에 나오는 용을 이교 로마로 직접 지목한다. 이교 로마는 교황권에게 세 가지를 넘겨주었다: "자기 권세와 자기 보좌와 큰 권세".

군사 권력은 496년 클로비스 때부터 이교 로마에 의해 부여되었다. 통치할 '자리'는 330년에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면서, 이전 수도였던 로마를 교황 교회의 통제하에 남겨둠으로써 교황권에 주어졌다. 533년에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교황이 교회의 수장이자 이단의 교정자라고 칙령을 내려, 자신의 '큰 권세'를 로마의 교황에게 넘겨주었다. 다니엘서 8장 12절은 '군대'가 주어진 때를 지목하며, 그 예언적 진리는 많은 증인들에 의해 증언된다. 그 시점(496년)부터 교황권은 '번성하였다'.

그것은 이스라엘 북왕국에 대한 진노가 1798년에 끝나고 교황권이 치명상을 입을 때까지 계속 "행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 왕은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들보다 자신을 크게 하며,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참람한 말을 할 것이요, 진노가 끝날 때까지 형통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다니엘 11:36.

8장 9절은 남성형 로마(이교 로마)를 묘사하며, 이교 로마가 수행한 세 단계의 정복 과정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것은 교황 로마가 땅의 보좌 위에 세워지기 위해 정복해야 했던 세 지리적 지역을 표상하는데, 이는 7장에서 뿔한 세 뿔로 표현되어 있다.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의 그 두 가지 세 단계의 정복은,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3절에서 현대 로마의 세 지리적 장애물을 표상했다. 그리고 8장 11절에서는 남성형 작은 뿔(이교 로마)이 다시 나타난다. 그 구절에서 거룩하게 된 논리는 너무나 견고하여,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조롱하는 자들은 그들의 가짜 토대를 세우기 위해 여러 신학적 거짓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정녕 그는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재에게까지 이르렀고, 그로 말미암아 늘 드리는 제사가 제하여졌으며, 그의 성소의 처소가 내던져져 무너졌다. 다니엘 8:11.

우리가 1863년 이후 재림주의에 도입된 가짜 동전과 가짜 보석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재림주의가 배도한 개신교와 가톨릭의 교리를 지지하는 근거로 사랑하는 소위 신학적 전문성의 두 가지 주요 분야가 있다는 점이다. 재림주의의 현대 신학자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자신들이 성경 역사 또는 성경 언어의 전문가라는 것이다. 그들이 그 구절을 적용하는 방식은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봉한 책이 되어 버렸음을 드러낼 뿐 아니라, 자신들이 성경 언어의 전문가라는 그들의 주장이 단지 바리새주의의 현대적 발현에 불과함도 드러낸다.

첫째는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작은 뿔과 관련해 문법적 성의 교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들이 정말 히브리어 전문가라면, 다니엘이 그 절들에서 의도적으로 성을 교차시켜 사용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희석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작은 뿔은 남성형과 여성형 둘 다로 표현되며, 그 성이 절들 사이에서 번갈아 나타난다. 신학자들은 이 사실을 허튼소리와 위조 동전으로 덮으려 하지만, 이는 11절이 교황 로마가 아니라 이교 로마를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들은 물론 11절의 작은 뿔이 교황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교 로마다.

네 개의 '작은 뿔' 구절 가운데 두 개는 남성이고 두 개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성경 예언에서 여자는 교회를, 남자는 국가를 상징한다는 성경적 진리를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면, 보려는 모든 이는 11절의 작은 뿔이 여성적 로마(교황 로마)가 아니라 남성적 로마(이교 로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구절은 이교 로마(그)가 군대의 주에게까지 스스로를 높였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이교 로마가 갈보리의 십자가에 군대의 주를 못 박았을 때와 마찬가지로이다. 이교 로마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절은 계속해서 그(이교 로마)에 의해 "항상 드리는 제사가 제거되었다"고 말한다.

다니엘서에는 둘 다 "take away"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 있다. 그 단어들은 "sur"과 "rum"이다. 두 단어 모두 성소 봉사에서 사용된다. "sur"은 제거하거나 치우다를 뜻하며, 성소의 제단에서 재를 치워 없앨 때 그 재의 제거를 묘사하는 데 쓰인 단어가 "sur"이다. "rum"이라는 단어는 들어 올리다와 높이다를 뜻하며, 성소의 제사장이 흔들여 바치는 제물을 들어 올릴 때 그는 그 제물을 "rum"(들어 올리다)하였다. 11절에서 이교 로마("the daily")는 이교의 종교를 들어 올리고 높임으로써 이교를 "rum"(take away)할 것이다.

이교 로마는 이교 신앙을 들어 올려 높일 것이다. 성경 언어에 정통하다고 자처하는 재림교 신학자들은 다니엘서에서 'take away'가 나오는 모든 경우를 'remove'로 취급하기로 선택한다. 그들은 다니엘의 분명하고 정확한 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리하여 자신들을 선지자 다니엘보다 위에 둔다.

성경 원어를 이해한다고 자처하는 신학자들은, 다니엘이 서로 다른 두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같은 뜻을 의도했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거를 제시한다. 그들은 그릇된 주장을 떠받치기 위해 장황하고 지루한 단어 연구를 내놓는다. 성경 역사를 이해한다고 자처하는 신학자들은, 그 그릇된 적용이 역사상의 서로 다른 시기에는 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그러므로 다니엘이 서로 다른 두 단어를 사용했을 때 다니엘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역사 전문가만이 가려낼 수 있다고 한다. "줄 위에 줄"이라는 방법론을 피하려는 신학자들이 이러한 두 가지 그릇된 방법을 자주 사용하므로, 그것들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녕 그는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재에게까지 이르렀고, 그로 말미암아 늘 드리는 제사가 제하여졌으며, 그의 성소의 처소가 내던져져 무너졌다. 다니엘 8:11.

그 구절에서 "taken away"로 번역된 단어는 "들어 올리고 높다"를 뜻한다. 그것은 제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사실은 재림교 신학자들에게 혼란과 모순을 야기하는데, 다니엘이 사용한 단어의 실제 정의를 그 구절에 적용해 간단히 평가해 보면 그들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구절의 "작은 뿔"이 교황 로마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그 구절은 "그에 의해"(교황 로마) "상번제가 제거되었다"고 읽혀야 한다고 본다.

당연히 그들은 화이트 자매가 그것이 인간의 지혜로 덧붙여진 것이며 본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직접 밝힌 그 추가된 단어를 포함하는 데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때 나는 'daily'(다니엘 8:12)와 관련하여 'sacrifice'라는 단어는 사람의 지혜로 첨가된 것이며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주께서 그것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심판의 시간'의 외침을 전한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았다. 초기 저술, 74.

그들은 "the daily"를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daily sacrifice"는 "the daily"가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이라는 개념을 지지한다. 그러나 영감은 "sacrifice"라는 단어가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이 'the daily'를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으로 동일시하면, 그 구절은 '그에 의하여'(교황권 로마) 'the daily가 제거되었다'라고 읽히게 되거나, '교황권에 의해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이 제거되었다'라고 읽히게 된다. 그들은 실제로 이 거짓을 가르친다. 그들은 교황 통치의 어둠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에 대한 참된 이해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제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take away"로 번역된 단어는 제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들어 올리고 높인다는 뜻이다. 성경 언어의 전문가들이라 자처하는 이들이 히브리어 단어 "rum"의 의미를 그 구절에 올바르게 적용한다면, 그들의 번역은 "교황권에 의해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이 들어 올려지고 높여졌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교황권이 언제 그리스도를 들어 올리고 높인 적이 있었는가?

그들은 히브리어 "sur"의 정의를 히브리어 "rum"에 덧씌우려 한다. 다니엘은 다른 두 구절에서 "the daily"와 관련하여 "제거하다"라는 뜻의 "sur"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11절에서는 "들어 올린다, 높다"라는 뜻의 "rum"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이 구절을 둘러싼 꾸며낸 이야기들은 "take away"로 번역된 단어의 의미를 왜곡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에게서 제거된 때는

결코 없었다.

그러나 이분은 영원히 살아 계시므로 변치 않는 제사장직을 가지셨다.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7:24, 25.

재림교 신학자들이 하듯이, 그 구절을 잘못 적용한 것을 떠받치려는 시도로, 교황권이 그리스도의 성소에서의 중보 사역을 중단시킬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권력을 행사하던 시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그 구절이 교황권이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을 들어 올리고 높였다고 가리킨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은 다니엘의 말씀의 의미와 엘렌 화잇의 영감받은 권면을 피하고, 다니엘의 말씀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가르친다.

정녕 그는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재에게까지 이르렀고, 그로 말미암아 늘 드리는 제사가 제하여졌으며, 그의 성소의 처소가 내던져져 무너졌다. 다니엘 8:11.

신학자들은 그 구절의 의미가 '교황권에 의해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이 제거되었다'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이 제거되었다는 해석은 그 제거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성소의 처소가 '내던져졌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고 한다. 그리스도께서 중보를 행하시는 곳인 하늘 성소가 내던져졌다고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다. 또한 '그의 성소의 처소'인 하늘 자체가 내던져졌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도 없다. 다시금 신학자들은 그 구절의 '그의 성소의 처소'가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킨다고 주장함으로써, 다니엘이 그 생각과 정반대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선지자 다니엘 위에 자신들을 올려놓는다.

자칭 히브리어 전문가들은 그 구절에서 히브리어 단어 "rum"을 히브리어 단어 "sur"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히브리어 단어 "miqdash"는 히브리어 단어 "qodesh"로 이해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Miqdash"와 "qodash"는 다니엘서에서 모두 단순히 "성소"로 번역되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Miqdash"는 하나님의 성소이든 이방의 성소이든 어떤 성소든지 가리킨다. 이는 성소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이지만, "qodesh"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키는 데만 사용된다.

다니엘은 이방의 성소와 하나님의 성소의 차이를 알고 있었다. 다니엘이 이방의 성소를 지칭하려 했다면 그는 "miqdash"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연속된 네 구절에서 다니엘이 그 두 단어를 세 번이나 사용한다는 사실을 소위 히브리어 전문가들이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나로서는 놀랍다. 둘 다 "sanctuary"로 번역되는 두 히브리어 단어를 다니엘이 사용한 방식이, 그가 이해되기를 의도한 의미를 규정한다.

참으로 그는 군대의 주재에게까지 자신을 높였고, 그로 말미암아 매일 드리는 제사가 제하여졌으며, 그의 성소의 처소가 내던져졌다.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대적하도록 군대가 주어졌고,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졌으며, 행하여 형통하였다. 그때 나는 한 거룩한 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고, 또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던 그 거룩한 자에게 이르기를, 매일 드리는 제사와 황폐하게 하는 죄악에 관한 이 환상이 어느 때까지며, 성소와 군대가 짓밟히도록 주어지는 것이 어느 때까지나

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다니엘 8:11-14.

재림주의의 기초가 되는 바로 그 본문에서, 다니엘은 둘 다 '성소'로 번역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한다. 13절과 14절에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칭할 때에만 쓰이는 '성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선택했지만,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소일 수도 있고 이방의 성소일 수도 있는 일반적, 즉 통칭적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다.

다니엘이 11절의 "성소"를 하나님의 성소로 지칭하려 했다면, 그는 바로 다음 세 절에서 두 번 사용한 것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썼을 것이다. 다니엘이 11절의 이방 성소와 13절과 14절의 하나님의 성소를 구별하고 있었음은 절대적으로 분명하다! 그러나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11절에서 "내던져졌다"고 한 "그의 성소의 처소"가 하나님의 성소의 처소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처소"라는 단어는 피한다.

그들은 교황권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빼앗고 하늘 성소의 진리를 땅에 던졌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다니엘은 11절의 "성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이방의 성소였다고 분명히 했다. 다니엘은 또한 던져진 것이 "성소"가 아니라 그의 성소의 "처소"였다고 역시 분명히 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의도적인 성(性) 변동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채, 현대 신학자들은 배도한 개신교 내부에서 기원한 "the daily"의 정의를 채택하고, 인간의 억측과 전통, 관습이라는 모래 위에 기초를 쌓기 시작했다. 그들이 11절에 이르면, 그들은 밀러가 "the daily"를 이교로 이해한 것이 옳다고 확인해 준 화이트 자매의 영감으로 주어진 권고마저 거부하고, 가톨릭과 개신교 신학에 대한 그들의 애호를 옹호하기 위해 호도와 억측의 술수를 동원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 구절에서 이교 로마를 교황 로마로 바꾸고, '들어 올리고 높다'라는 뜻의 단어에 '제거하다'라는 정의를 억지로 씌운다. 그들은 사탄적 상징인 'the daily'를 거룩한 상징으로 규정한 다음, 성소의 'the place'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이교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긴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자들'(이사야의 표현대로)은 '배운 자들'이 그렇다고 말해 줄 때에만 이해하며,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하면서 우화 한 접시를 받아들인다.

밀러의 꿈 속에서 보석으로 표현된 지식의 증가에 대한 고찰을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교훈에 마음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한다. 이는 우리가 예상해야 할 일이다. 한때는 진리를 옹호했으나 그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미움과 조롱으로 그 진리를 발로 짓밟는 그 부류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시련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는 신실한 종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원수의 공격은 그의 말씀의 진리로 맞서야 한다. 거짓은 가면을 벗겨야 하며 그 참된 본성이 드러나야 하고, 여호와의 율법의 빛이 세상의 도덕적 어둠 속으로 비쳐 나가야 한다. 우리는 그의 말씀의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 이 엄숙한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무죄하다고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변호하며 설 때, 자기를 변호하려 서서 모욕과 고통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이유로 법석을 떨지 말자. 자기를 동정하지 말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위해 크게 열심을 내자.

"사도는 말한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견디지 못하고, 귀가 가려워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스승들을 많이 두며,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서리라.' 사방을 둘러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자들의 현혹적인 상상에 쉽게 사로잡히는 사람들을 본다. 그러나 진리가 그들 앞에 제시되면, 그들은 조급함과 분노로 가득 찬다. 그러나 사도가 하나님의 종에게 하는 권면은 이렇다. '모든 일에 깨어 있으라, 고난을 견디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네 직분을 온전히 이루라.' 그의 때에도 어떤 이들은 주의 일을 떠났다. 그는 이렇게 쓴다. '데마는 이 현세를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또 이렇게 말한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는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반대와 모욕이라는 비슷한 시련을 겪었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조차도 우리와 같이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거역하는 것을 견디셨다.

이 시대를 위한 모든 경고는 성실히 전해져야 한다. 그러나 '주의 종은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에 능하고, 오래 참으며, 온유함으로 스스로 대적하는 자들을 훈계하라.' 우리는 믿음을 떠난 자들의 기만적 활동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우리는 흑암의 군주에게 공격을 받으셨을 때 우리 주께서 사용하신 그 동일한 무기, '기록되었으니'로 그들의 영과 영향력에 맞서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권면은 이렇다.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나타내도록 힘쓰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거짓 교사들과 미혹하는 자들의 교활하게 뒤튼린 오류에 맞서려면 부지런한 수고와 간절한 기도,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는 '말세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경솔하며, 자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이 맞닥뜨리게 될 사람들의 성품을 묘사한다. '참소하는 자들', '선한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 신실한 이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사신은 주님께서 보여 주신 그 동일한 영을 드러내야 한다. 그는 겸손과 사랑으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수고해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에 관하여 계속 말하면서, 그들을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신실한 자들과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에게 비유한다. 그는 말한다: "이제 안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리니,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임이, 저들의 경우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러 싸우는 어리석음이 드러날 때가 오고 있음을 안다. 우리는 아무리 비방과 멸시를 받아도 평온한 인내와 신뢰 가운데 기꺼이 기다릴 수 있다.

이는 "드러나지 않을 은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은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분에 의해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혁자들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기록되기를, "주를 비방하던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 우리 중 누구도 홀로 십자가를 지라고 부름받지 않았다. 갈보리의 수난의 사람이신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동정하시며, 그분 자신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그분을 위하여 슬픔과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또한 도우실 수 있다. "정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운 것들 안에 거하라." 리뷰 앤드 헤럴드, 1888년 1월 10일.